

추석 가정예배 순서

예배의 부름

인 도 자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 시107:1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559장(통305장) -

다 같 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 도

말 은 이

성 경

골로새서 2:6-7

다 같 이

- 6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 7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설 교

-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가정 -

다 같 이

기 도

도

설 교 자

찬 송

- 370장(통455장) -

말 은 이

1. 주안에 있는 나에게 탄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4.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기 도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가정

골로새서 2:6~7

2026년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가 넘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좋은 일이 많고,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잘되는 가정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단순히 환경이 좋아서 나오는 감사가 아닙니다. 바울은 감사가 넘치는 삶의 이유를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나무가 매서운 바람과 가뭄을 이기며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뿌리가 땅 속 깊이 내려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풍성함은 물질, 환경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성공에 뿌리를 내리면 성공할 때는 기쁘지만 실패하면 흔들립니다. 돈에 뿌리를 내리면 돈이 많을 때는 평안하지만 어려워지면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린 가정은 환경이 달라져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가족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가정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가정이 됩시다. 가을 들녘의 곡식들이 햇빛과 비를 맞으며 영글어가듯, 우리 가족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성숙해 가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에 바라는 소망을 한 가지씩 온 가족 앞에서 이야기 하도록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2026 추석 가정예배

대한예수교장로회 전주중부교회